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그 중 EFS30군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48시간 추가 배양 후 관찰한 부화율에서는 EFS30군이 30.6%, EFS35군이 25%, EFS40군이 11.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EFS30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높은 부화율을 보였다. 배포기 배아의 생존율을 살펴보면, EFS30군이 90.4%, EFS35군이 98.5%, EFS40군이 1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그 중 EFS40군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24시간 추가배양 후 관찰한 부화율에서는 EFS30군은 46.2%, EFS35군은 57.6%, EFS40군은 64.3%로 EFS40군이 가장 높은 부화율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상실배와 배포기 배아의 생존율을 비교해본 결과, EFS35군과 EFS40군에서 배포기 배아가 통계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부화배포까지의 발달률인 부화율에서도 EFS35군과 EFS40군에서 배포기 배아가 유의하게 높은 발달률을 보였다.

Conclusions: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생쥐 상실배의 유리화 동결을 위한 동결보호제로는 30%의 ethylene glycol이 함유된 EFS30용액이, 배포기 배아의 유리화 동결을 위해서는 EFS40용액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실배 배아보다는 배포기의 배아가 유리화 동결을 위해 더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P-3 Ovulation Trigger with GnRH Analogue for the Prevention of OHSS

정현정 · 천은경 · 김명희 · 장기훈

강서미즈메디병원

Background & Objective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ovulation triggering with GnRH analogue as a preventive strategy of OHSS.

Method: 31 high responders in GnRH antagonist protocol for IVF. Mean age is 32.2 \pm 2.7 and mean basal FSH is 5.9 \pm 1.8 mIU/mL, mean E2 level on ovulation triggering date is 3762.3 \pm 2586.8 pg/ml and mean gonadotropin dose is 1587.1 \pm 491 IU. Ovulation was triggered by lucrine (Leuprorelin, Abbot, Korea) 500 mic-gm twice q 12hrs or 1500 mic-gm once. Main outcome is the prevalence of severe OHSS, clinical pregnancy rate (CPR) and pregnancy rate/fresh cycle.

Results: CPR/OPU was 10/27 (37.0%), CPR/fresh cycle was 8/26 (30.8%), and the prevalence of severe OHSS was 1/31 (3.2%).

Conclusions: Ovulation trigger with GnRH analogue is effective and safe strategy for the prevention of OHSS and has acceptable range of pregnancy rate of fresh cycle.